

전공의 의료 파업 지속... 전주시 대응 관심 집중

시, 전주시 의사협회단체와 비상응급 상시 협조체계 구축...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2개 반 46명 구성·운영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의료 파업이 20일로 1개월이 넘게 지속되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 등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비상대책 관계자에 따르면, 시 관할 응급의료시설은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등 6개이고 총 621개 병의원에 의사인력은 1,820명이다.

19일 현재 전공의 파업 현황은 전북대는 전공의 154명 중 3명 복귀, 예수병원은 57명 중 16명이 복귀했다. 적정 의료 인력 확보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전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환자 분산 및 병상 회전을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협조 등 전주시 의사협회단체와 비상응급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보단계 중 심각(Red)을 발령 중에 있다. 이에 따라 2월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계획 수립 및 비상진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 1개월이 넘게 지속되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 등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으로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2개 반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주시 보건소 21명, 덕진 보건소 25명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주요사항은 의료기관 운영상황 점검, 시민안내, 불편사항 접수, 주요 동향 수렴 등이다.

향후 대응계획은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수련병원 진료현황 파악, 의료기관 운영상황 점검, 시민 안내 및 불편 민원 접수 처리 등을 수행한다.

야간진료 및 전문 의료기관 확인 후 소방본부와 진료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예를 들면, 정형외과의 경우 골절, 접합 수술, 산부인과의 경우 응급분만, 제왕절개 등이다.

현재 전북대병원 등은 수술실은 40% 정도 운영 중이고 38병상은 폐쇄 상태이고 공중보건은 5명이 파견되어 복무하고 있다.

환자의 대폭 감소로 인해 적자가 100억원이 넘고 있으나, 전북대병원측은 아직은 남은 의료 인력들에 대해서 무급휴가 등의 계획은 없다고 한다.

전공의가 이탈한 가운데 이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PA 간호사는 전북대병원의 경우는 98명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응급실에 내원해서 진료를 못받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

이는 소방 119 등에서 중증 환자만 보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비해서 응급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 중전 대비 약 50% 감소했다.

지난 15일 의과대학 비대위 의결로 전주소 25일부터는 의과대학교수들도 집단 사직서 제출이 결의된 상태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더욱 증폭되는 추세로 의료대란에 대한 전주시 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는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을 반장으로 해 "민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며 "현장에 매일 탐정급 직원 등을 파견해서 특이 사항 등을 파악하여 신속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월드컵경기장 초록빛 '가득'

시, 외부 관중석 출입구 경관조명·보안조명 초록LED로 교체

전주월드컵경기장이 프로축구 전북 현대모터스FC의 팀컬러인 초록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월드컵경기장 동측의 경관조명과 가로등 조명을 초록빛 LED 조명으로 교체한 데 이어, 최근 나머지 서·남·북측 관중석 출입구 경관조명과 보안조명을 모두 초록색LED로 교체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드컵경기장 야외 녹색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추진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경기장 기동 부분 LED 경관조명 12개가 신규 설치됐으며, 데크진입로에는 LED 보안등 조명 32개가 교체됐다.

여기에 올해는 경기장 서·남·북측의 LED 경관조명 40개와 보안등 65개가 전북현대의 팀컬러인 초록색 LED로 바뀌면서 이색적인 경관을 연출하게 됐다.



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지난해 관람석이 교체된 데 이어 경기장 외부조명도 모두 특색 있는 초록색으로 바뀐 만큼 축구팬들의 관람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의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해 향후 경기장 내 필드 조명도 다양한 퍼포먼스가 가능한 LED로 교체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AFC 챔피언스리그 등 국제경기를 대비하기 위한 연습경기장을 준비하고, 전북현대 팬을 위한 역사관 설치 등 프로축구 팬들을 위한 공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확대

(재)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 금액을 기존 49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7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으로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입원 치료할 경우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되면서 대상자는 하루 최대 7만 원, 연중 10월까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원 금액이 기존 대비 42% 증가한 만큼 저소득가구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병비 지원 신청은 퇴원일 이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재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사회적 관계 및 돌봄 취약 가구를 위한 간병비 지원사업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최적의 간병비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눔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과 기업, 단체들의 기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제2기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 실시

전주시는 지난 19일 '제2기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위한 멘티 오리엔테이션(OT)을 실시했다.

시가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사업 '사회적가족 이름'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에게 정서적 지지자와 조력자 등 사회적가족이 될 멘토를 연결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전주소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정서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지체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 2년 차인 올해는 제

2기 멘토링단을 모집해 체험형 프로그램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접목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2기 멘티로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최규호 전주시 금융복지담당소장의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 △이정은 J건설연구소 대표의 '나만의 삶을 디자인하는 나만의 강점 찾기' 교육 △제2기 멘토링 사업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김욱기 기자

전국 유일 중재의료기기 전주시 지원 체계 구축

전주시, 메카노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 착공식 개최

전주시가 혁신의료기기의 안정성 평가와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실증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전국 유일의 혁신 중재의료기기 연구개발·생산·실증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이에 따라 바이오산업을 시민들을 위한 미래먹거리로 키워 강한 경제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는 20일 전북대학교 내 신축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의 착공식을 가졌다.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이하 '실증센터')는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설립이 추진 됐으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215억 원이 투입된다. 실증센터는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다.

시는 실증센터 설립을 통해 조직 내부로 기계적인 힘을 전달해 세포 또는 조직의 치료, 진단 및 생물학적 활성을 확인하는 메카노 바이오 기술을 최소화해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중재적 기술이 융합된 중재적 의료기기의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역 특화 기반 조성이 정부와 지역이 연계하여 국가 핵심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시아 보스턴이라는 청사진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기업, 학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핵심 첨단기술을 기반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등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이 사업은 기획부터 평가진행까지 전북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착공에 이른 매우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는 20일 전북대학교 내 신축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의 착공식을 가졌다.

성공적인 대학-지자체 협업 모델"이라며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 융합 의료기기 산업 R&D 및 실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책임지는 한국형 랩센트럴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의료기기 산

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 높은 성장세와 함께 미래 유망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실증센터가 완공되면 우리 전주는 국내 유일의 혁신의료기기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내 의료기기 기업 및 연구 인력의 관심이 집중돼 혁신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